



**에씨가 그랬어요**

**지은이 안티에 담**

übersetzt von Min Jung Ramm



이 친구는 이다예요. 이다는 이다가  
에씨라고 부르는 곰인형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다는 아침에 딸기잼을 바른 빵과  
코코아를 마셨어요.

이다가 코코아를 엮질렀어요.

엄마가 „이다야 엉망이 됐어. 조심  
좀 하지 그랬니“ 하고 꾸짖었어요

이다는 "에씨가 그랬어요!" 하고  
말했어요. 에씨는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씨는 말을  
하지 못하는 곰인형 이거든요.

그래서 에씨는 더이상 아침 식사를  
함께 할수 없게 되었어요.



이다는 엄마와 함께 산책을 했어요.

엄마가 „우리 밤 주울까?“ 하고  
물었어요.

밖은 아주 추웠어요.

하지만 이다는 오늘 머리를 두  
갈래로 땀났기 때문에 모자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가 물구덩이에서 모자를 집어  
들었어요.

"에씨가 그랬어요!" 이다가 크게  
말했어요.



엄마는 점심거리로 소세지를 샀어요.  
 이다는 마트에서 장보는 것이 재미  
 있어요. 이다도 이것 저것 샀어요.  
 그런데 엄마는 마쉬멜로우는 물론  
 젤리곰도, 아이스크림도, 초코렛도  
 사려고 하지 않았어요.  
 "에씨가 그랬어요" 하고 이다가  
 아주 크게 소리쳤어요.  
 이다가 아주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판매원이 사탕 두 개를 선물로  
 주었어요. 에씨, 너는 안줄꺼야!



이다는 낮잠을 자야하는데 하나도 피곤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재미 있는 것을 하고  
 싶었어요.  
 엄마는 큰 그림을 별로 좋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카페트 위에 그려진  
 그림은 특히 더 싫어 했어요.  
 "에씨가 그랬어요!" 라고 이다는  
 말하고 엄마로 부터 스케치북을  
 받았어요.  
 "에씨는 이제 이쁜 그림을 그릴수  
 있어요." 이다는 말했어요.



오후에 이다는 벤하고 같이 놀았어요.  
 벤은 나무블럭으로 높은 탑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다는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더 원했어요.  
 벤이 울자 "에씨가 그랬어요!" 라고  
 이다가 크게 말했어요.  
 에씨는 놀이방으로 들어 가서, 더 이상  
 같이 놀수가 없었어요.



"내 생각에는 에씨가 좀 자야 말썽을 안부릴거 같아" 라고 엄마가 방으로 들어 오면서 말했어요.

이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에씨를 침대에 눕혔어요.

마침내 조용해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저녁에 이다는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었어요.

에씨가 아주 하얗게 되었어요. 아빠가 말했어요. "아주 좋은 크림인데!"  
엄마가 야단칠거야..."

"에씨가 그랬어요!" 하며, 이다가 에씨를 심하게 야단 쳤어요.  
그래서 에씨는 목욕을 해야만 했어요.



에씨는 완전히 젖었지만 이다와 함께 자길 원했기 때문에 목욕 수건으로 감쌌어요.

다행히 머리를 이불 밖으로 내밀고 있어서 에씨는 볼수 있었어요.



아빠가 이다를 재울때면, 아주 크게 자장가 일곱곡을 불러야 했어요!

자장가가 끝나면 아빠는 뽀뽀를 받았어요. 아빠가 꿈을 꾸듯이 „고마워 에씨“ 했어요.

"뽀뽀를 한건 나예요. 에씨가 아니라!" 이다가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더 좋아 했어요.



이다가 에씨에게도 뽀뽀했어요.  
“잘자 에씨. 내일까지 다 마를거야.  
심한 장난은 더 하면 안돼. 알았지?”  
에씨도 기뻐했어요.



끝